

영등포시대 공감기자단, 밀반찬을 부탁해 체험행사

“농촌은 도시의 뿌리, 도시는 농촌의 꽃이다!”
“각기 다른 향기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



달걀 없고, 기운 없을 때 누운지 한 그릇을 대우게 배우는 반찬, 이 때를 달가웠다. 여중 생강에도 들릴 수 있는 달걀은 없을까?

12일(일) 영등포시대 주최하고 경기도 가평군 '잠사살림'농협의 사명인이 주관한 오이지 담그기 체험행사가 가평군 삼번 초서원

(영양 관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영등포시대 공감기자단 30여 명은 전남 목평의 주관한 500여 개의 오이를 직접 씻은 후 절기를 닦아내고 영등포시대 기자단의 밤상 이야기(캐시와 필자인 이주연(잠사살림) 대표의 강담에 맞춰 밥집 물을 직접 배양하는 등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주연 대표는 평소의 지론인 “농촌은 도시의 뿌리, 도시는 농촌의 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의 어엿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주연 대표는 “도시의 만들어 농촌의 어엿을 만들어주며, 농촌을 아는 만큼 먹거리가 보인다”라며 농작물의 원료가 없어 애를 태우는 농민들을 위해 농가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오래된 공감기자단원 1등 이만아침 원장은 “휴일을 이용해 가까운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울 프로그램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강구와 영등포구 예술인연합회 명예이사장은 “각기 다른 직종의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향기를 풍기고 한자리에 모여 그 향을 살피는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이지 담그기 체험행사에 대한 소감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이지 담그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영등포시대 공감기자단은 친환경 식단으로 특별히 준비된 식사, 편의사와 건강 상담, 다습기 참가, 친환경농산 방문을 마지막 일정으로 가평에서 진행된 친환경 오이지 담그기 체험행사를 마쳤다.

한편 영등포시대 공감기자단은 9일(일) 출정남도 태안군 농가를 방문해 마늘 뽑기 등 일손을 도왔다.

신민서 기자

‘사룻데 합창단’ 창단 첫 연주회 개최

아낌없는 박수갈채 받아!

10일(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3층 문화홀에서 영어와 사랑하는 일만안과 모여 다양한 장르로 펼칠 1회 개회와 콘서트를 비롯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룻데 합창단(영등포구)의 창단 첫 연주회로 환영했다.

2015년 12월 9일 창단에 그동안 영등포역 앞에서 개강과 연주

회 등을 펼쳐져 작심해 내공을 쌓아온 사룻데 합창단의 창단 첫 연주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룻데 합창단’의 여성 지휘 존 비안 첫 창간 연주회 1부에서는 남자, 경복궁(가래, sing sing sing, 남자는 빠 애지는 할구, 영공의 발출을 선보였으며 2부에서는 허

영 모리스, 도라지꽃, 학은시원, 웃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연주해 관객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사룻데 합창단 지휘자인 비안 존 김홍우 씨가 비에 오빠의 ‘커피엔’ 중 ‘우우사의 노래’도 연주회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다. 사룻데 합창단 관계자는 “창단



만 깊고 밝다면 젊은 5개월의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면서 “이 열매를 기운이 어떤 창간 연주회를 찾아온 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민서 기자

신간소개



‘부부 그 일곱 빛깔 무지개’ 출간 잘 사랑하고 잘 사랑받는 방법

부부문제상담소를 운영하며 부부문제 상담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정용기 지지가 내 번째 저서 ‘부부 그 일곱 빛깔 무지개’를 내놓았다.

정용기 지지의 내 번째 저서 ‘부부 그 일곱 빛깔 무지개’는 잘 사랑하고 잘 사랑받는 방법을 담은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위한 기본서라고 할 수 있다. 지지는 부부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인의 지혜에 감사하며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준

어머니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부부 그 일곱 빛깔 무지개’는 지지의 부인과 지지의 어머니를 통해 배운 지혜로 부부문제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모아 엮은 내용이다.

지지의 연구를 통해 엮은 이 책은 총 일곱 개의 챕터로 정리되어 있어 부부 사이의 애환 문제라도 현명하게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지는 “부부

그 일곱 빛깔 무지개”를 통해 부부들이 서로를 위하여 아끼며 현명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술을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정용기 지지의 ‘부부 그 일곱 빛깔 무지개’를 읽어볼 만하다. 더불어 지지의 저서인 ‘예보 당신의 사랑’, ‘부부, 들어 가주는 사랑’, ‘부부, 들어 만나 하나 되어도 함께 일어도 좋다